

##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지로그 문학

김중혁의 『팽귤뉴스』(문학과지성사)

김미현 ·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교수

세상은 유비쿼터스를 지향한다. 그 속에서 더 이상 기계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불무나 비명은 진부하다. 이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애증과 공존, 기계의 기계다움에 대한 친화(이 더욱 절실해져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시물화가 아닌 시물의 인간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이 때 디지털 기술과 이블로그적 감성을 합한 디지털(digital)적 신문명이 과연 문학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가장 근접해 있는 소설이 바로 김중혁의 소설이다.

2006 05 May

### 문학의 발명

작가 김중혁은 자신을 '레고 블럭'이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첫 소설집인 『팽귤뉴스』의 작가의 말에서 자신이 수많은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문학작품, 사물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블럭은 “지금 어디에선가 하얀 종이나 텅빈 모니터를 앞에 두고 똥가를 쓰려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며, “나는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영향 받았으며, 그들의 문장과 생각과 철학을 디제이처럼 리믹스해왔다”고 고백한다. 이 소설집에는 실리지 않은 단편 「비닐광 시대」(『세계의문학』, 2005년 겨울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디제이들이 하는 리믹스를 순수한 영혼이 담긴 원곡을 해치는 죄악으로 보는 남자를 향해 디제이인 '나'는 다음처럼 항변한다. “이건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음악들일까. 이 사람들의 음악은 그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또 누군가, 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 가 그 수많은 밑그림 위에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 누군가의 그림은 또 다른 사람의 밑그림이 된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여러 개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디제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작가의 고백이 그저 문학과 문학의 영향관계나 문학과 문화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형성소설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나,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로 대변되는 저자의 죽음이나 창조성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김중혁 소설의 새로움이 있다. 이 작가는 문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발명이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가가 보기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없다. 심지어 문학도 이미 있다. 그렇다면 이미 있는 것을 없애거나, 그것을 다르게 쓰면 새 것이 된다. 이런 논리로 김중혁은 문학조차 발명한다. 심지어 기존의 문학이 제대로 된 문학, 문

학다운 문학, 순수한 문학이 아니라면 더욱 새롭게 발명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소설집에 실린 「발명가 이눅씨의 설계도」에 나오는 발명가 이눅의 모습은 문학 혹은 작가의 새롭게 발명된 모습과 겹쳐진다고 할 수 있다. 에스키모 중에서 존경받는 샤먼을 말하는 '이누크'에서 따온 이름인 이눅은 그 이름답게 '물건'이 아닌 '개념'을 발명한다. 그에 의하면 발명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없다. 이미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재해야 필요가 창출된다. 그래서 그는 존재하는 것들을 없앤다.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새로 생기는 것이 모두 발명품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에 의한 필요의 창출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나 있던 것을 언제 어디에도 없던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수형, 작품 해설)에 의한 필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그가 발명하는 것은 물건이 아닌 개념이 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에 더 가까운 것이 된다. 아니면 깎아서 쓰는 만년필, 인구제한기, 무인 고해성사실처럼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그 자체를 위해 다르게 사용할 생각을 한다. 그것도 발명이니까.

여기서 왜 이토록 이 작가가 '무용지물'에 집착하는지를 알게 된다. 「무용지물 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방송의 디제이인 '메이비'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사물들에 대한 묘사를 모아놓은 박물관을 만든다. 필요를 촉발시키지 않기에 쓸모는 없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진정한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물들의 집합체가 바로 메이비의 무용지물 박물관이다. 무용(無用)이 무용을 위해 전용(轉用)되거나 활용(活用)되는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옛날에는 최초이자 최첨단이었으나 이제는 박물관이나 전시될 만한 오래된 사물들에 애착을 보인다. 자전거나 타자기, 축음기, LP레코드 등이 그것이다. 이미 자동차나 컴퓨터, 첨단 오디오, CD 등에 의해 거의 무용지물이 된 의고적 사물들에 작가는 고유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작가는 여



김중혁의 「펭귄뉴스」(문학과지성사)

작가 김중혁은 자신을 '레고 블럭'이라고 명명한다. 그래서 첫 소설집인 「펭귄뉴스」의 작가의 말에서 자신이 수많은 작가나 음악가, 미술가, 문학작품, 사물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이런 작가의 고백이 그저 문학과 문학의 영향관계나 문학과 문화의 상호텍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형성소설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나,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로 대변되는 저자의 죽음이나 창조성의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김중혁 소설의 새로움이 있다. 이 작가는 문학을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서 '첨단'의 운명을 본다. 가장 빨랐던 것이 가장 낡은 것이 되는 모순, 신제품이 어느덧 쓰레기가 되는 변화, 그 속도 혹은 과잉을 비판하는 것이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발명이다.

이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사람,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사람”(동아일보, 2006. 3.16)을 작가로 정의한다. 그래서 작가는 진정한 작가가 되기 위해 사물 중독자가 아닌 사물 마니아가 되어 “사물화를 통해 사물화를 극복하기”(김형중, '사물들의 해방자, 김중혁론', 『문학과사회』, 2006년 봄호)를 시도한다. 고유한 자신만의 가치를 통해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사물은 진정한 사물로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을 위한 사물은 무생물이지만, 사물 그 자체로서의 사물은 생물이자.

#### 청각과 촉각의 문학

사물을 생물로 인식하기 위해 인간은 시각이 아닌 청각이나 촉각이 중요하다. 때문에 김중혁의 소설을 읽기 위해서는 예민한 감각을 필요로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관음(觀音)의 소설'(우찬제, '관음(觀音)의 묘사, 그 혼성 감각의 뿌리', 『문학과사회』, 2005년 여름호)로 정의된 「무용지물 박물관」에서 메이비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고층빌딩, 캠코더, 만화책, 야구, 크리스마스 트리, 도서관, 공항”과 같은 사물들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시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들은 메이비가 전해주는 목소리에 의해 사물들을 경험한다. 가령 비틀스의 'Yellow Submarine'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나마 잠수함에 대해서는 앞모습은 “입이 푹 튀어나온, 심술궂은 물고기” 같고, 몸통은 “비늘을 다 긁어낸 물고기”라고 설명하지만, 노란색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시 “정말 색이 만질 수 있는 거라면 좋겠네요. 그런데 궁색한 위roč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눈은 말

이죠. 느낌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미묘한 색을 아주 단순하게 축소시켜 본대요. 아주 게으른 녀석이죠?”라는 말 밖에는 할 수 없다.

이럴 때 시각 장애인과 정상인의 차이는 무화된다. 어차피 우리가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것 아니면 '대충'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시각이 아닌 상상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중요한 것이 청각이나 촉각이다. 「무용지물 박물관」이나 「팽귤뉴스」에서 딱딱하게 굳은 주인공의 시각중심주의적 사고를 깨뜨리는 것은 모두 낮은 '목소리'들이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파고들어 귀에까지 이르는 것 같았다. 메이비의 목소리는 피처럼 온몸을 통과해 심장으로 전달될 후 마음의 밑바닥을 들쭉거리며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라거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정말 교묘한 비트가 숨어 있다. 듣는 사람들의 심장 소리를 모두 하나의 주파수로 맞추어버리는 것 같은 숨결이 살아 있다”라는 말은 모두 주인공을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데에 청각이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에스키모, 여기가 끝이야」에서는 '보는' 지도가 아니라 '만지는' 지도가 나온다. 에스키모들이 만들었다는 나무 지도를 통해 주인공 '나'는 삶의 미로를 최소한 만져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이 측량하는 지도의 오차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 에스키모들이 “소리”와 “기억”만으로 만든 해안선의 입체지도는 한밤중에도 그들의 고래잡이를 인도한다. 기호와 표지만이 존재하는 자신의 종이 지도에 비해 나무 조각의 굴곡을 따라 그 형태를 상상해야 하는 에스키모들의 나무 지도는 그 자체로 촉각과 상상력의 결정체에 해당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소리와 기억으로 지도를 만들지만 그들이 제작한 지도는 항공 사진으로 제작한 지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에스키모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김중혁은 사물을 생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몸 전

김중혁은 사물을 생물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몸 전체를 더듬이로 사용한다. 그래서 사물과의 전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첨단 기기나 기술이 인간의 몸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확장시켜 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들리거나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치환한다.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인간중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물이 아닌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사고가 아닌 감각에서 나온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더 상상력을 유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체를 더듬이로 사용한다. 그래서 사물과의 전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첨단 기기나 기술이 인간의 몸을 확장시켜 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몸을 확장시켜 주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다. 그래서 그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들리거나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치환한다. 텔레비전보다는 라디오가,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인간중심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물이 아닌 몸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사고가 아닌 감각에서 나온다.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 새 것보다는 오래된 것이 더 상상력을 유발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가령, 이런 식이다. “자전거는 밟으면 앞으로 갈 뿐이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설 뿐이다. 단순하다. 더 이상 필요한 건 없다.”(「바나나 주식회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타자가 종이를 낭비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종이를 버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낭비입니다, 아니면 컴퓨터처럼 종이를 아끼면서 생각을 지우는 게 낭비입니다.”(「회색 괴물」)

## 비트 혹은 아날로그

이 작가가 보기에 인간의 상상력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은 과학의 발달로 인한 첨단화와 기술화이다. 고도 소비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가치는 ‘압축’이다. 「무용지물 박물관」에서 ‘나’가 만든 디자인 회사의 이름은 적다의 ‘less’와 작다의 ‘small’ 두 단어를 합한 ‘레스몰 디자인(LesSmall Design)’이다. “압축하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디자인이든 삶이든 말예요. 너저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건 정말 비경제적인 것입니다”가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이다. 당연히 이 회사의 모토는 “예술은 집에 가서 하고 회사에서는 디자인을 해라”이다. 하지만 메이비를 만나고 나서 ‘나’는 상업적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상상 속에서 잠수함에 노란색을 입히기 위해 눈을 감는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는 경제 원칙이 아닌, 최대 상상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는 인간적 원칙에 동참하는 것이다.

「명정한 유비쿼터스」에서의 주인공 ‘나’가 강조하는 것도 컴퓨터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이다. U사의 네트워크 방화벽의 허점을 체크해 보안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업무인 ‘나’의 신조는 “사람들에게 컴퓨터 뚜껑을 열게 만든 다음 그 속에 신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야말로 해커의 할 일”이라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는 유비쿼터스의 모토는 그만큼 컴퓨터의 지배나 조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컴퓨터에 대한 맹신이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처럼 말한다. “해커들 사이에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컴퓨터는 꺼진 컴퓨터이고, 가장 안전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처럼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려는, 그래서 살아 있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과학 기술과의 전면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등단작이자 표제작인 「팽귤뉴스」이다. 비트(bit) 속의 비트(beat)로 상징되는 저항을 보여주는 지하군과 이를 막으려

는 진압군 사이에서 '나'는 비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펭귄뉴스'는 비트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의 모토는 "비트가 없다면 우리도 없다. 우리가 없다면 세상의 미래도 없다"이다. 이 속에서 펭귄뉴스의 사회자가 되고 싶어했고, 나에게도 비트 자체였던 '그녀'를 잃으면서 '나'가 얻은 것은 자신의 고유한 비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비트의 있고 없음은 중요하지 않다. 비트는 어쨌든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녀가 '나'에게서 느꼈던 비트, 즉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 같아. 맥박을 재보려고 손가락을 대보면 매번 세기도 다르고 가끔씩은 아예 맥박조차 뛰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거든. 그런 거랑 비슷해"의 경지에 이른 비트가 중요해진다. 비트 자체가 아닌 자기만의 비트, 비트라는 인식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화되고 육화된 비트, 비트를 위한 비트가 아닌 나를 위한 비트, 그래서 맥박처럼 자연스러운 생물로서의 비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나나 주식회사」에서 바나나는 "어디에도 아무것도 짓지 말라"라는 바나나 현상에 '일회용주의'로 대변되는 문명비판적 최소주의나 최저주의 요소를 투입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백 미터 마라톤」에서는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최고의 거리와 속도를 필요로 하는 사백 미터 달리기보다 42.195Km의 거리와 속도를 필요로 하는 마라톤과 결합해 '사백 미터 마라톤'이라는 신종 코스로 재탄생된다. 자신만의 속도와 모양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신노마드' 혹은 '비트 개인주의자'들이 출현한 것이다.

물론 이들은 기존의 문명비판론자들이나 인간중심주의자들처럼 과거로의 퇴행을 통해 근대성에 대한 거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김중혁의 소설 속 비트주의자들은 "압축할 줄 모르는 자들은 뻔뻔하다. 자신의 너저분한 인생을 하릴 없이 연장해 가는 자들도 그러하다. 압축의 미학을 모르는 자들은 삶의 비의를 결코 알지 못하고 죽는다."("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면서 자기 자신조차 압축하며 스

로를 파괴하는 김영하 소설 속의 급진적 허무주의자들보다 더 사회적이다. 그리고 진정한 저항 정신을 잃어버려 "비트나 펑크냐"("16민거나말거나 박물지")를 묻는 질문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해졌다고 비판하는 백민석의 음악인 협동조합자들보다 더 온건하다. 또한 펭귄뉴스의 속보는 윤대녕의 존재의 시원을 찾기 위한 '은어남시통신'("은어남시통신")보다는 현실적이거나 남성적이다. 김중혁에게 개인과 사회, 과거와 미래, 인간과 기계는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소설은 이란성 쌍둥이처럼 비슷하면서도 다른, 최첨단의 것과 옛 것이 화간(和姦)하고 있다. 그 격차만큼이 김중혁 소설의 새로움이자 익숙함이다. 그는 포스트모던한 방법으로 클래식한 주제를 다룬다. 그 부조화가 아주 조화롭게 나타난다.

세상은 유비쿼터스를 지향한다. 그 속에서 더 이상 기계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탐구나 비판은 진부하다. 이제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애증과 공존, 기계의 기계다움에 대한 천착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물화가 아닌 사물의 인간화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디지털적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합한 디지로그(digilog)적 신문명이 과연 문학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가장 근접해 있는 소설이 바로 김중혁의 소설이다. 그는 엄청 공들여서 인간적 정취가 물씬 풍기는 자신의 홈페이지(www.penguinnews.net)를 가지고 있다. 그가 선곡해 놓은 음악들을 들으며 이 글을 쓰게 만들고, 그 곡 중에서 Damien Rice의 'The Blower's Daughter'로 휴대폰 컬러링을 설정하게 할 만큼 그의 홈페이지는 인간적이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 반응을 위해 그의 홈페이지는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기계를 말하기 위해 기계를 빌려와야 하는 이런 기계적 상상력의 모순과 매력 속에 김중혁 소설은 존재한다. 